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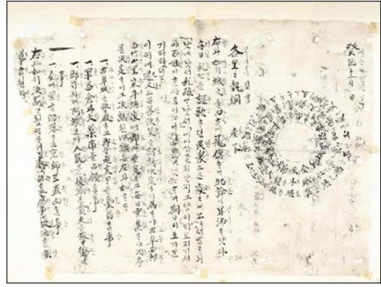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인류 유산으로 꽃피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29일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 이하 기념재단)은 오는 2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정읍시와 공동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지난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 것을 범국민적으로 축하하고자 마련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신청기관인 기념재단에 전달하고 특별 제작된 인증패를 전라북도도와 정읍시에 수여한다. 기념재단은 등재에 기여한 기관 및 관계자에게 공로패, 감사패 수여를 통해 노고에 감사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문화 행사로 송재영 명창의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



사발통문

봉준' 중 한 대목, 김지수 서예가의 축하 퍼포먼스, 정읍시립국악단의 창무극 '천명'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기념재단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산재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비

스를 체계화하고,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은 2024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특별전시 등 가치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순철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이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동학농민혁명 기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보급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어 2시 30분부터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함께 열릴 예정이며, 전문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의 기록물 활용방안과 세계화 전략을 논의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호원대 공연미디어학부, 5관왕 달성

밀양공연예술축제 · 거창세계대학연극제서 수상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학생들이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와, 제18회 거창세계대학연극제에서 5관왕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18회 거창세계대학연극제에 호원대학교는 '유리동물원'을 포함해 총 10개의 작품과 해외 3개 작품이 본선에 올랐다. 이에 호원대는 금상, 여자연기대상, 남자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심사 위원단은 "연극다운 연극 작품이었다"며 "네 명의 배우가 120분 동안 무대를 끌고 가는 힘이 대단했다"고 평했다.

또한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지난 7월 21~29일까지 밀양 아리나에서 개최, 호원대학교는 작품상과 연출상(김유라, 김정원)을 수상했다.

호원대에 따르면 '유리동물원'은 테네시 윌리엄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재 탄생된 작품이다. 김유라(연기전공 4년), 김정원(기억연출



전공 4년) 연출가는 "작품 '유리동물원'은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각자가 처한 좌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가 직면한 현실과 조화로운 삶,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해와 사랑을 다루는 작품인 만큼 서로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인내하며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단단하게 버텨줄 수 있어 준 두 지도교수님과 임해준 배우,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아트센터, 시민 문화 예술 향유 쉼터 자리매김

남원아트센터가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공간과 남원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시민의 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트센터는 2022년 개관 후 미디어아트, 사진, 회화, 공예,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기획 운영을 통해 그간 시민들이 갈구해 왔던 문화적 감성을 채우고 있다.

남원 출신의 박서영 작가의 일체 미술 첫 작품전으로 젊은 작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했으며,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 회원전을 비롯한 15개의 전시를 준비하여 지역 작가와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한곳에서 선보

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 전시를 기획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설 전시 중인 남원시 농촌자원·경관 사진공모전을 관람한 한 시민은 "농촌의 구석구석 일상 모습을 부담 없이 볼 수 있어 마음이 편해진다"며 소감을 얘기했다.

또한 전시에 참여한 타지역 작가는 "호남지역에 이렇게 좋은 전시 여건을 갖춘 곳은 드물다"며 잘 꾸며진 최적의 위치와 전시장, 넉넉



남원아트센터 전경

한 주차 장소에 감탄하며 지속적인 전시회 개최를 희망하였으며, 오는 11월에 '미디어아트 특별전'을 기획하고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창작 파인아트를 선보일 계획으로 자세한 일정은 남원아트센터 홈페이지(www.namwonar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해풍고추축제서 문화누리카드 사용하세요"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8월말 개최되는 고창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고창 해풍고추축제에서 축제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식음료 및 문화 체험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 결제를 지원한다.

고창 해풍고추축제는 청정한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탐사르 습지로 지정된 청정 고창갯벌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고 황토에서 자란 고창 해풍고추를 소재로 해풍고추 품평회,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해적' 김제 온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두 번째 이야기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해적'이 9월 6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대한민국의 발레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단장 강수진)은 1962년에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함께 세계 유명 작품 레퍼토리를 보유하고있으며 이번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해적>은 국립발레단만의 버전으로 각색 및 재인무하여 전막 발레 레퍼토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발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레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기에, 폴란드, 캐나다 등 발레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활발한 문화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설이 있는 발레'는 발레의 대중화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립발레단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과 함께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여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 예술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29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가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학교폭력 아픔 위로' 창작극 공연

한옥마을 아트홀 기획 운영 '오늘부터 맑음' 오늘 개막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오늘부터 맑음' 공연이 25일 개막한다.

이는 (재)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3 민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옥마을 아트홀(대표 김영란)이 기획 운영하는 공연이다.

한옥마을 아트홀은 극단 재인촌 우듬지가 2008년에 개관한 우듬지 소극장에서 시작해 14년 동안 다양한 주제와 컨셉의 창작극을 꾸준히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2021년 9월 전주시 신시가지로 이전해 새로운 공연장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늘부터 맑음'은 극 중 왕따 피해자인 승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품의 연출을 맡은 정찬호 연출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한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위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학교폭력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다"며 연출 의도를 밝혔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창작극 '오늘부터 맑음'은 극작 김영오, 연출 정찬호, 조연출 정준영, 조명디자인 박형근, 홍보 정준경, 코디네이터 최미용과 더불어 세 명의 배우(진시라, 정은경, 홍정은)가 참여한다.

8. 25. (화)
~ 9. 9. (토)

오늘부터 맑음

어제까지는 호렸지만!
오늘부터는 맑게!!
앞으로는 푸욱 맑음!!!

한옥마을아트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공연은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한옥마을 아트홀(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23-9, 3층)에서 만날 수 있다. 다만, 월요일과 일요일은 휴관이다.

티켓은 전석 2만 원으로, 온라인(인터파크, 타임티켓, 티몬, 예스24, 위메프, 플레이 티켓) 및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